

VIP REPORT



■ 중국 경착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주량, 주원, 이장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중국 경착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중국 경착륙에 진입 1

2. 중국 경착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6

3. 정책적 시사점 13

■ HRI 경제 지표 15

1. 중국 경착륙 진입

경제성장률이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을 이탈하여 급격히 둔화되는 현상을 소위 경착륙이라고 한다. 경제가 경착륙 국면에 진입하면 물가와 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경기침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기업 파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00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년 만에 한 자릿수에 그쳤다. 중국의 연간 GDP 증가율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7년 동안 8%대에서 11%대까지 상승 추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9.0%로 추락하였다. 특히 2008년 4/4분기에는 6.8%로 전년 동기의 11.2%에 비해 4.4%p 급락하였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으로 인해 **2008년 9월 이후 중국의 수출입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중국의 수출입은 2008년 11월과 12월 연속 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우리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한국의 대 중국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감소폭이 확대 추세에 있다. 특히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32.2%나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 품목들은 중국의 동종 품목 수입 수요보다 더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2008년 한국의 대 중국 3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전기기기, 기계류에 대한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율은 각각 17.1%와 19.9%이나 우리나라의 동 품목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5.7%와 5.4%에 불과하다. 특히 2위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은 28.2%에 달하나 대중 수출은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주요 해외기관들의 2009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OECD(8.0%), World Bank(7.5%), IMF(6.7%), RBS(5.0%)로 5.0%~8.0%를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200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 중국 경착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나리오 별 전망치) **2009년 중국경제가 8.0%의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감소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경제가 주요 해외 기관들의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인 8.0%의 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08년 대비 0.9% 감소할 전망이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인 5.0%의 성장을 가정하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38.1%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시나리오 별 중국의 수입수요와 한국의 대 중국 수출 변화 >

(단위 : 억 달러)

2009년 시나리오		중국의 수입 수요		한국의 대중 수출	
경제성장률	전년비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8.0	1.0%p 감소	10.5	1,188.0	△0.9	△8.2
7.0	2.0%p 감소	2.7	305.5	△13.3	△121.5
6.0	3.0%p 감소	△5.1	△577.0	△25.7	△234.9
5.0	4.0%p 감소	△12.9	△1,459.6	△38.1	△348.2

(주요 품목 별 대 중국 수출 전망)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5.0% 성장)를 가정하면, 12대 주요 수출 품목 중 9개가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3대 수출 품목인 전기기기, 차량 및 기계류의 대 중국 수출은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박, 수상구조물 및 철강제품 등 대 중국 의존도가 낮은 품목의 대 중국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중국경제 성장률 5% 가정 시 주요 수출품목 별 전망 >

(단위 : 억 달러, %)

	중국의 수입수요			한국의 대 중국 수출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광물성 연료	1,611.2	2,171.9	34.8	86.4	108.7	25.8
유기화학품	372.8	280.7	△24.7	85.7	46.6	△45.6
플라스틱제품	459.4	378.1	△17.7	62.5	44.7	△28.5
고무와 그 제품	112.9	109.7	-2.8	6.0	4.0	△33.8
철강	228.2	187.8	△17.7	33.9	27.1	△20.0
철강제품	96.9	98.3	1.4	7.9	8.4	6.1
동과 그 제품	245.5	163.0	△33.6	18.3	7.6	△58.4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1,275.0	1,076.1	△15.6	95.2	53.6	△43.7
전기기기와 부품	2,490.2	1,865.2	△25.1	241.8	128.6	△46.8
차량 및 부품	248.1	231.0	△6.9	26.6	10.6	△60.2
선박과 수상구조물	11.8	11.2	△4.8	5.7	40.6	612.9
정밀기기	728.1	595.6	△18.2	116.9	76.0	△35.0

주 :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감률은 해당 품목에 대한 중국의 전체 수입의 증감을 의미하고,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증감률은 해당 품목에 대한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의 증감을 의미.

(생산 감소) 대 중국 수출의 국내 생산유발효과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2009년 중국 성장률이 8%를 기록한다면 대 중국 수출 경로를 거쳐 국내에서 186조 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8년 대비 13조 원 감소한 것이다. 만약 5% 성장에 그친다면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116조 4,000억 원에 머물러 전년 대비 83조 원 감소하게 된다.

(부가가치 감소) 대 중국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중국 성장률이 8%일 경우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년에 비해 25.8조 원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GDP 대비 3.2%에 달하는 금액이다.

(고용 축소) 고용창출효과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8%)을 따를 경우, 2009년 대 중국 수출이 유발하는 고용창출력은 101만 7,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 7만 7,000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장 비관적인 전망(5%)을 따를 경우, 대 중국 수출의 고용창출효과는 63만 5,000명으로 2008년 대비 45만 3,000명이 감소하게 된다.

<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

(단위: 조 원)

	2008년	2007년	중국의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8.0%	7.0%	6.0%	5.0%
수출	100.8	76.1	94.2 (△6.6)	82.4 (△18.4)	70.6 (△30.2)	58.8 (△42.0)
생산	199.5	150.6	186.5 (△13.0)	163.2 (△36.3)	139.8 (△59.7)	116.4 (△83.1)
부가가치	62.1	46.9	58.1 (△4.0)	50.8 (△11.3)	43.6 (△18.5)	36.3 (△25.8)
고용	108만 8천	82만 1천	101만 7천 (△7만 1천)	95만 3천 (13만 5천)	85만 2천 (23만 6천)	63만 5천 (45만 3천)
수입	38.6	29.1	36.1 (△2.5)	33.8 (△4.8)	30.2 (△8.4)	22.5 (△16.1)

주: 괄호안의 숫자는 2008년 대비 증감액을 의미.

3. 정책적 시사점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수출 비중 1위 국가인 중국 경제의 위기에 대응하여 **첫째, 우리 수출의 과도한 중국 의존성 개선을 위해 대안시장을 발굴해야 한다.** 오일달러로 구매력이 높아진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산유국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들 지역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보망 구축과 자원외교를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중 수출 타격이 심한 분야의 산업기반 붕괴를 막아야 한다. 특히 자동차, 전기기기, 기계류 및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해당 업종들에 대한 해외진출보험 제도의 도입, 무역 금융대출제도의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출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소비세의 추가 인하 및 감세기간 연장, 등록세 감면 등을 통해 내수 시장에서의 동반 불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국 수출 경기와 연관성이 적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발생하면 내수시장 경기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수출 경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 민간 차원에서 한중 양국 간 경제 및 산업 협력 강화, 우리 수출 기업들과 중국 유통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무역 관련 기관들의 시장 및 유통망에 대한 분석과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중국과의 수출 경쟁 심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정부도 향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수출 경기 급랭에 대비하여, 수출 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적극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 제품의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경쟁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수출 관세 인하, 무역금융의 지원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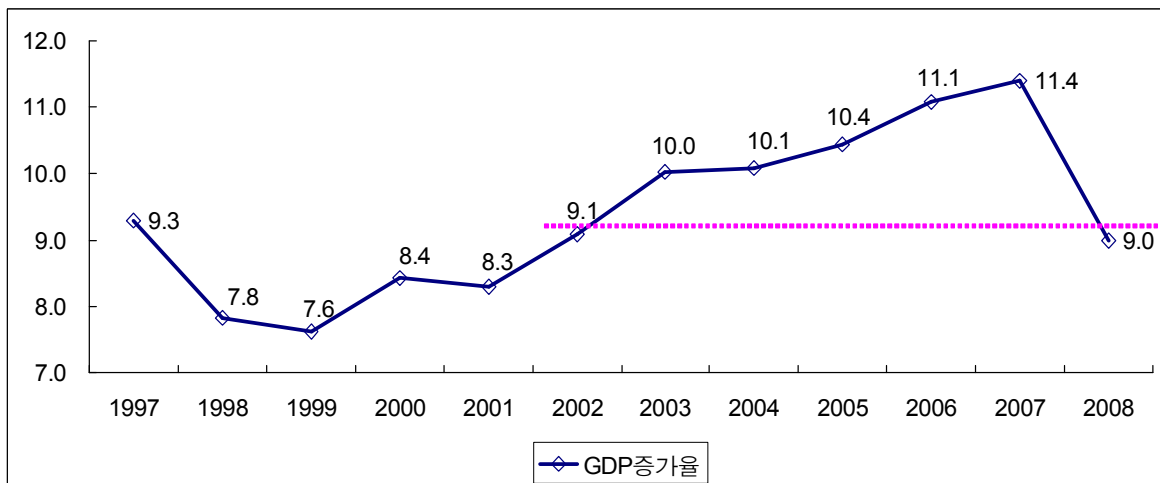
중국경착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중국 경착륙¹⁾에 진입

- (경제성장률 둔화)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8% 대에서 11% 대로 상승하였으나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9% 대로 추락함
- 2008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9.0%로 전년 동기의 11.5%에 비해 2.5%p 둔화
- 2008년 1/4~3/4분기 성장률은 9.9%로 전년 동기 대비 2.3%p 하락하였으며, 4/4분기는 6% 대로 추락, 2008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9.0%를 기록함

< 중국경제 성장률 추이 >

(단위 :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1) 경착륙의 정의 : 경제성장률이 정상적인 경제 주기를 이탈하여 급격히 둔화되는 현상을 소위 경착륙이라고 함.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물가와 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경기침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기업 파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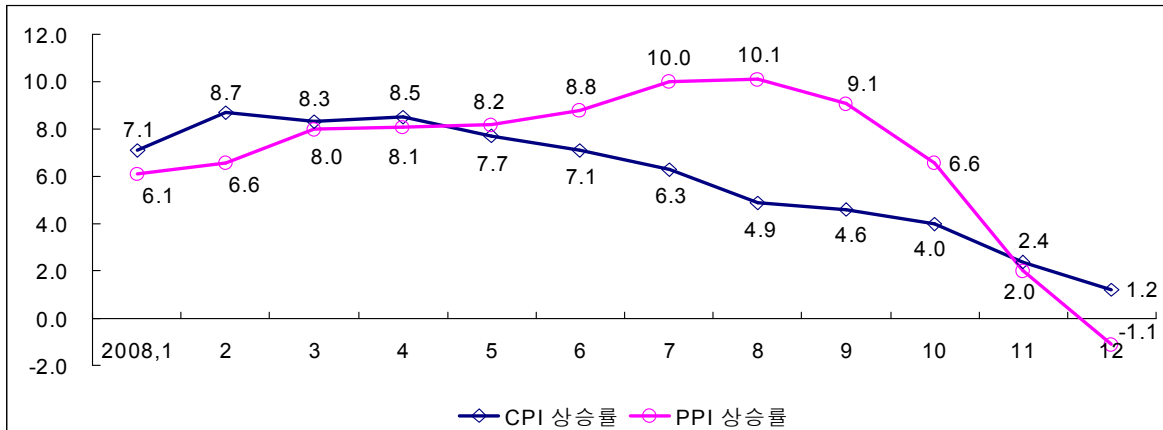
중국 경착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물가, 자산 가격 하락) 2008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물가 상승률은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부동산과 주식 시장 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2008년 상반기 중 월별 물가상승률(CPI, PPI)은 10%대까지 치솟았으나 하반기 이후 둔화되어 12월에는 CPI와 PPI 상승률은 각각 1.2%와 -1.1%를 기록

<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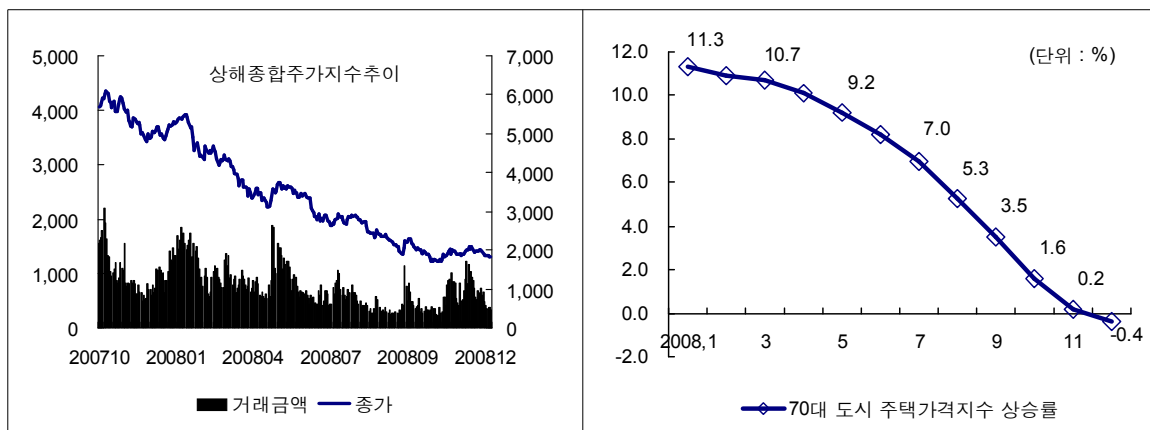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2008년 중 상해종합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65% 이상 하락하였으며, 2008년 말 70대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p 정도 하락함

< 상해종합주가지수 및 7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추이 >



자료 : 상해증권거래소, 국가통계국.

○ (중국의 수출입 감소) 2008년 9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대외 수출과 수입이 급격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

- 2008년 7월까지 중국의 대외 수출 누적 증가율은 22.6%에 달했으나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11월과 12월은 연속 2개 월동안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
- 2008년 7월까지 중국의 수입 누적 증가율은 31.1%에 달했으나 8월부터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하여 11월과 12월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

< 최근 중국의 수출과 수입 추이 >

(단위 : 억 달러, %)

		2008(1~7월)	200808	200809	200810	200811	200812
수출	금액	8,029.1	1,348.7	1,364.4	1,283.3	1,149.9	1,111.6
	증가율	(22.6)	(21.1)	(21.5)	(19.2)	(-2.2)	(-2.8)
수입	금액	6,792	1,061.8	1,070.7	930.9	749	721.8
	증가율	(31.1)	(23.1)	(21.3)	(15.6)	(-17.9)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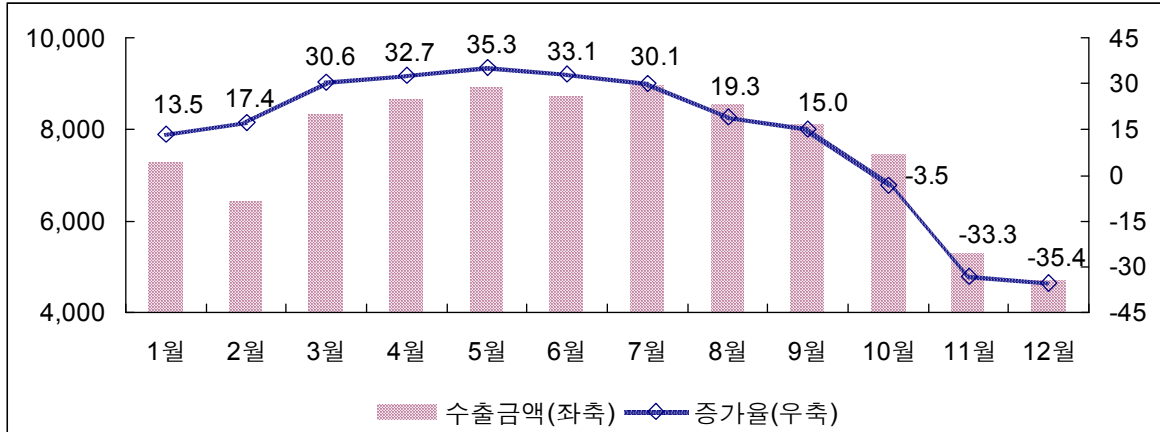
자료 : 중국 상무부.

○ (한국의 대 중국 수출 급감) 2008년 7월 이후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하여 10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 2008년 3~7월 동안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30% 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8월부터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
- 월별 대 중국 수출 금액도 7월에는 89억 6,000만 달러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월에는 47억 2,000만 달러를 기록

< 최근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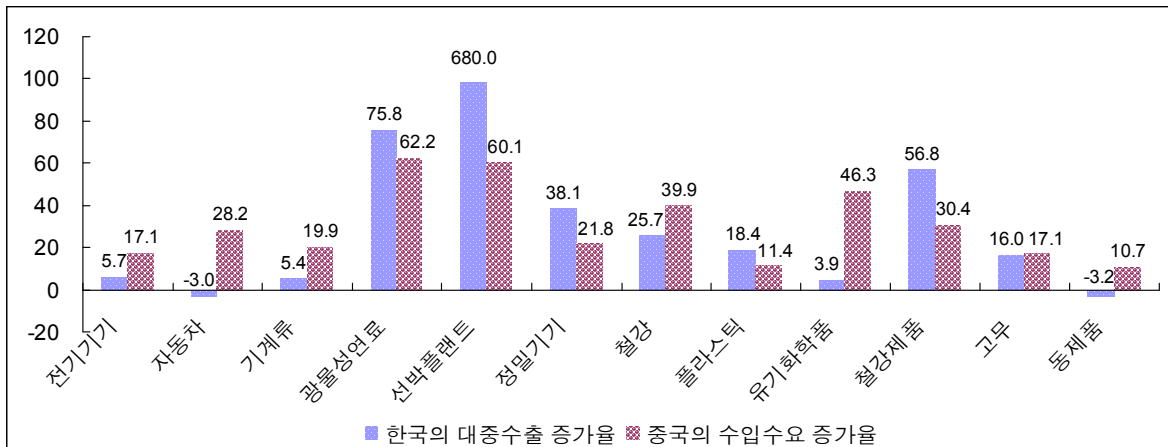
○ (대중 수출 경쟁력 저하) 2008년 주요 수출 품목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을 밑돌고 있어 주력 수출 상품의 대중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한국의 3대 주력 수출 품목인 전기기기, 자동차, 기계류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중국의 수입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전기기기와 기계류에 대한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율은 각각 17.1%와 19.9%이지만, 대중 수출 증가율은 5.7%와 5.4%에 불과
 -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은 28.2% 달하나 대중 수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임
-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이 높은 광물성 연료, 선박플랜트, 철강제품 및 정밀기기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수입 수요 증가율을 상회
 - 광물성 연료와 선박플랜트에 대한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은 60% 정도인 반면, 대중 수출 증가율은 각각 75.8%와 68.0%로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밀기기와 철강제품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각각 38.1%와 56.8%로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을 능가함

- 철강, 유기화학 및 동(銅)제품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이들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철강은 대중 수출 증가율이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율을 12.2%p 정도 하회, 동(銅)제품의 경우 중국의 수입 수요는 10.7% 증가한 반면 대중 수출은 3.2% 감소함
 - 유기화학품의 경우 대중 수출 증가율이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에 크게 못 미쳐 대중 수출 경쟁력 약화가 가장 심함
- 그 외 플라스틱은 대중 수출 증가율이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을 소폭 상회하였고, 고무의 경우는 대중 수출 경쟁력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플라스틱 제품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18.4%로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 11.4%를 7%p 정도 상회함
 - 고무 제품의 경우는 대중 수출 증가율과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이 각각 16.0%와 17.1%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수입 수요와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 비교 >

(단위 : %)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주 : 수출품목의 나열 순서는 좌에서 우로 가면서 금액이 큰 것부터 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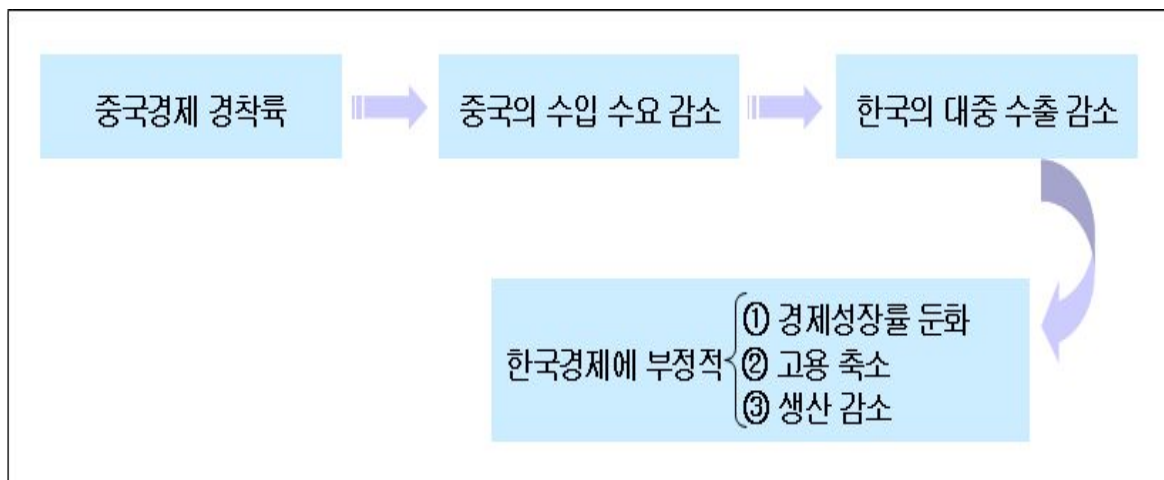
○ (2009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주요 해외 기관들은 2009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5.0%~8.0%로 전망

- OECD, World Bank, IMF는 각각 8.0%, 7.5%, 6.7%로 전망하였으며,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RBS는 각각 6.0%, 5.5%, 5.0%로 전망

2. 중국 경착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 경착륙의 파급 경로) 중국의 경착륙은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 한국의 對 중국 수출 감소를 통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침
 - 중국의 경착륙은 1차적으로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를 유발
 - 2007년 기준 가공무역이 중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6%로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수입 수요 감소가 불가피함
 -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는 한국의 대 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짐
 - 한국의 대 중국 수출 품목 중 중간재(반제품, 부품)와 자본재의 비중이 90%를 상회함으로써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에 취약한 구조를 보임
 - 대 중국 수출 감소는 한국경제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국내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2007년을 기준으로 90%를 상회하였으며 중국은 2004년 이후 한국의 최대 해외시장으로 부상
 - 2008년 말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동시에 최대 무역흑자(2008년 : 144억 6,000만 달러) 원천이기도 함

< 중국 경착륙이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 경로 >



○ (시나리오2) 별 전망치) 2009년 중국경제가 8.0%의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GDP 증가율에 대한 증분비 : 중국 GDP 증가율 1%p 증감에 따른 중국의 수입 수요와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 증분비는 각각 7.8%p와, 12.4%p로 나타남
 - 2008년 4/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6.8%로 전년 동기에 비해 4.4%p 감소, 동일 기간 중국의 수입 수요와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각각 34.3%p, 54.5%p 감소

< 중국 GDP와 한국의 대중 수출 증분비 >

	GDP 증가율 변화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율 변화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 변화
평균	4.4%p 감소	34.3%p 감소	54.5%p 감소
증분비	1%p 증감	7.8%p 증감	12.4%p 증감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해관(海關), 한국 세관.

-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전망 : 2009년 중국경제 성장률이 8% 대를 기록하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증가가 불가피함
 - 2009년 중국경제 성장률이 5.0%로 급락할 경우,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38.1% 감소한 58조 8천억 원을 기록할 전망

< 시나리오 별 중국의 수입수요와 한국의 대중 수출 >

(단위 : %, 억 달러, 조원)

2009년 예측치		중국의 수입 수요		한국의 대중 수출	
경제성장률	전년비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8.0	1.0%p 감소	10.5	1,188.0	△0.9	△8.2
7.0	2.0%p 감소	2.7	305.5	△13.3	△121.5
6.0	3.0%p 감소	△5.1	△577.0	△25.7	△234.9
5.0	4.0%p 감소	△12.9	△1,459.6	△38.1	△348.2

자료 : OECD, World Bank, IMF, Royal Bank of Scotland.

주 : 원/달러 환율은 현대경제연구원 2009년 연평균 전망치인 1,040원을 적용.

2) 세계 주요 전망기관인 OECD, World Bank, IMF는 2009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8.0%, 7.5%, 6.7%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은행인 Goldman Sachs, Morgan Stanley와 RBS는 각각 6.0%, 5.5%와 5.0%로 전망하고 있음

중국 경착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품목 별 대 중국 수출 전망)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인 5.0%의 성장률을 가정하면, 12대 수출 품목 중 9개가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선박과 수상구조물, 광물성 연료, 철강제품의 대중 수출은 증가세가 예상되나 전기기기, 차량 및 기계류 등 3대 수출 품목은 40% 이상 감소가 예상됨
 - 주요 수출 품목 중 대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선박과 수상 구조물의 경우는 전년 대비 60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광물성 연료와 철강제품의 경우는 각각 6.1%와 25.8%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전기기기, 차량, 기계류, 유기화학품, 동(銅)제품 등 품목의 대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GDP 증가율=5.0% 가정 시 주요 수출품목 별 전망 >

(단위 : 억 달러, %)

	중국의 수입수요			한국의 대중국 수출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광물성 연료	1,611.2	2,171.9	34.8	86.4	108.7	25.8
유기화학품	372.8	280.7	△24.7	85.7	46.6	△45.6
플라스틱제품	459.4	378.1	△17.7	62.5	44.7	△28.5
고무와 그 제품	112.9	109.7	-2.8	6.0	4.0	△33.8
철강	228.2	187.8	△17.7	33.9	27.1	△20.0
철강제품	96.9	98.3	1.4	7.9	8.4	6.1
동과 그 제품	245.5	163.0	△33.6	18.3	7.6	△58.4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1,275.0	1,076.1	△15.6	95.2	53.6	△43.7
전기기기와 부품	2,490.2	1,865.2	△25.1	241.8	128.6	△46.8
차량 및 부품	248.1	231.0	△6.9	26.6	10.6	△60.2
선박과 수상구조물	11.8	11.2	△4.8	5.7	40.6	612.9
정밀기기	728.1	595.6	△18.2	116.9	76.0	△35.0

자료 : 중국 해관(海關), 한국 무역협회.

○ (생산 감소) 대 중국 수출의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2008년에 비해 대폭 감소할 전망

- 2005년 수출의 생산유발계수는 1.98로 추정

-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생산계수는 투자가 1.996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1.98의 수출 그리고 1.71의 소비가 음
- 수출의 생산유발계수는 1.980으로 1,000원 어치를 수출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1,980원이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

<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 계수 >

	1995년	2000년	2005년
소비	1.665	1.671	1.712
투자	1.985	1.923	1.996
수출	1.869	1.868	1.980
평균	1.801	1.781	1.852

자료: 한국은행.

- 2009년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로 인해 최악의 경우 국내 생산이 2008년 대비 83조 1천억 원이 감소할 전망

- 중국경제 성장률을 8.0%로 가정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94조 2천억 원으로, 이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는 186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나며, 이는 전년 대비 13조 5천억 원 감소한 것임
-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5.0%를 가정하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58조 8천억 원으로, 이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도 116조 4천억 원으로 감소

< 시나리오별 2009년 대 중국 수출의 국내생산 창출규모 추정 >

(단위: 조 원, %)

	2009년 GDP 증가율 전망치				2008년	2007년
	8.0%	7.0%	6.0%	5.0%		
수출	94.2	82.4	70.6	58.8	100.8	76.1
생산	186.5	163.2	139.8	116.4	199.5	150.6
차이	△13.0	△36.3	△59.7	△83.1	48.9	19.3

주 : 2006년, 2007년, 2008년은 각 년도 종가기준 원/달러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 (부가가치 감소) 대 중국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

- '투입-산출'분석에 따르면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5년 0.617을 기록
- 1,000원을 수출하였을 때 617원이 국내부가가치로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
-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5년 0.698에서 2000년 0.634 그리고 2005년 0.617로 감소함

<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유발 계수 >

	1995년	2000년	2005년
소비	0.851	0.836	0.841
투자	0.816	0.795	0.795
수출	0.698	0.634	0.617
평균	0.804	0.767	0.763

자료: 한국은행.

- 2009년 대 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 감소분은 최악의 경우 2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임
- 2009년 중국경제가 8.0%의 성장을 기록할 경우,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8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원 감소할 것으로 보여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국경제가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년에 비해 25조 8천억 원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의 2007년 GDP의 3.2%에 달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시나리오별 2009년 대중국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규모 추정>

(단위: 조 원, %)

	2009년 GDP 증가율 전망치				2008년	2007년
	8.0%	7.0%	6.0%	5.0%		
수출	94.2	82.4	70.6	58.8	100.8	76.1
부가가치	58.1	50.8	43.6	36.3	62.1	46.9
차이	△4.0	△11.3	△18.5	△25.8	15.2	6.0

주 : 2006년, 2007년, 2008년은 각 년도 종가기준 원/달러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 (고용 감소) 대 중국 수출 감소로 인한 국내 취업유발효과 저하로 인해 국내 고용 사정이 더욱 악화될 전망

- 2005년의 경우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10.8로 추정

- 10억 원 어치를 수출할 경우 10.8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의미
- 1995년의 경우 수출 10억 원 당 24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2000년 15.3개 그리고 2005년 10.8개로 낮아짐

< 최종수요 항목 별 10억 원 당 취업 유발효과 >

(단위: 명)

	1995년	2000년	2005년
소비	29.3	21.4	17.8
투자	18.4	15.0	13.6
수출	24.0	15.3	10.8
평균	24.8	18.4	14.9

자료: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Monthly Bulletin, 한국은행, 2008년 12월.

- 중국에 대한 수출은 그동안 국내 고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2009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2009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8.0%로 가정하더라도 대 중국 수출이 창출하는 국내 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7만 1천개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최악의 경우, 중국경제 성장률이 5.0%로 주저앉으면, 대 중국 수출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45만 3천개나 감소하게 되어 국내 고용 사정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시나리오별 2009년 대중국 수출의 고용창출 규모 추정>

(단위: 조 원, 명)

	2009년 GDP 증가율 전망치				2008년	2007년
	8.0%	7.0%	6.0%	5.0%		
수출	94.2	88.3	78.9	58.8	100.8	76.1
고용창출	101만 7천	95만 3천	85만 2천	63만 5천	108만 8천	82만 1천
차이	△7만 1천	△13만 5천	△23만 6천	△45만 3천	26만 7천	10만 5천

주 : 2006년, 2007년, 2008년은 각 년도 종가기준 원/달러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 (수입 감소) 2009년 대 중국 수출 감소로 인한 국내 수입 수요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급격한 수출 감소와는 대조적이므로 대외수지 악화가 예상

- 2005년 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0.383으로 추정

- 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2005년 0.383을 기록하여 1,000원의 상품을 수출할 경우 383원어치의 수입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짐
- 2005년을 기준으로 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0.383으로 소비의 0.214나 투자의 0.296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 계수>

	1995년	2000년	2005년
소비	0.197	0.211	0.214
투자	0.309	0.346	0.296
수출	0.302	0.367	0.383
평균	0.254	0.286	0.281

자료: 한국은행.

- 2009년 대 중국 수출 감소로 인한 국내 수입 수요 감소폭은 최악의 경우 2008년에 비해 16조 1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09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8.0%로 가정할 경우, 국내 수입 수요는 2조 5천억 원 감소하여 수출 감소폭인 6조 6천억 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그러나 2009년 중국경제가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수출은 42조 원 감소하는 데 비해 수입 수요는 16조 1천억 원 감소하는 데 그쳐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시나리오별 2009년 대중국 수출의 수입 유발 규모 추정>

(단위: 조 원, %)

	2009년 GDP 증가율 전망치				2008년	2007년
	8.0%	7.0%	6.0%	5.0%		
수출	94.2	88.3	78.9	58.8	100.8	76.1
수입	36.1	33.8	30.2	22.5	38.6	29.1
차이	△2.5	△4.8	△8.4	△16.1	9.5	3.8

주 : 2006년, 2007년, 2008년은 각 년도 증가기준 원/달러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3. 정책적 시사점

- **(대안 수출 시장 개척) 우리 수출의 과도한 대 중국 의존성 개선을 위해 대안시장을 발굴**
 - 주요 수출품목의 대중 의존도가 높을수록 중국경제의 경착륙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에 취약함
 - 오일 달러로 구매력이 높아진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산유국으로 주요 수출 품목의 시장 확대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자원외교를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산업기반 보호) 대중 수출 타격이 심한 분야의 산업기반 붕괴를 막아야 함**
 - 전기기기, 자동차, 기계류, 석유화학 등 대중 수출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해외진출보험과 무역 금융 대출제도 확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출 시장이 막힌 상황에서 내수 시장마저 위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비세의 추가 인하 및 감세 기간 연장, 등록세 감면 등의 정책도 필요함

- **(중국 내수 시장 진출 확대) 중국 수출 경기와 연관성이 적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필요함**
 - 정부 민간 차원에서 한중 양국 간 경제 및 산업 협력 강화 등이 요구됨
 - 특히 중국 정부의 SOC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이 사업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중국 경착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차별적인 공략 계획을 마련하고, 소비재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해야 함
 - 우리 수출 기업들과 중국 유통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무역 관련 기관들의 시장 및 유통망에 대한 분석과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제 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비) 향후 예상되는 제3국 시장에서의 중국과의 수출 경쟁에 대비

- 중국 정부도 향후 확실히 되는 중국의 수출 경기 급랭에 대비하여, 수출 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펼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지원은 중국 제품의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경쟁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함임
- 따라서 우리 정부도 수출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하고 무역금융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가격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HRI

이만용 연구위원 (danieli@hri.co.kr, 02-3669-4123)

예상한 연구위원 (syeahk@hri.co.kr, 02-3669-4181)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2007(P)	2008(E)	2009(E)	상반기	하반기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	5.0	4.1	3.1	2.2	3.8	
	최종소비지출 (%)	4.7	2.3	1.1	0.9	1.2	
	민간소비 (%)	4.5	2.0	0.8	0.7	0.9	
	총고정자본형성 (%)	4.0	0.3	2.1	1.3	2.9	
	건설투자 (%)	1.2	-1.4	2.2	1.5	2.8	
	설비투자 (%)	7.6	1.5	2.3	1.2	3.3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	60	-59.3	25	15	1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46	-130	54	20	34
		수출 (억 \$)	3,715	4,224	4,558	2,194	2,364
		증가율 (%)	(14.1)	(17.4)	(4.0)	(2.5)	(5.4)
		수입 (억 \$)	3,568	4,354	4,504	2,174	2,330
		증가율 (%)	(15.3)	(22.0)	(0.8)	(-1.5)	(3.1)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5	4.7	3.3			
	실업률 (%)	3.2	3.3	3.5			
	국제유가(Dubai, \$)	68	94	60			
금 용	원/\$ 환율 (평균, 원)	929.0	1,103.4	1,200.0			
	국고채금리 (3년만기, 평균 %)	5.23	5.27	4.8			